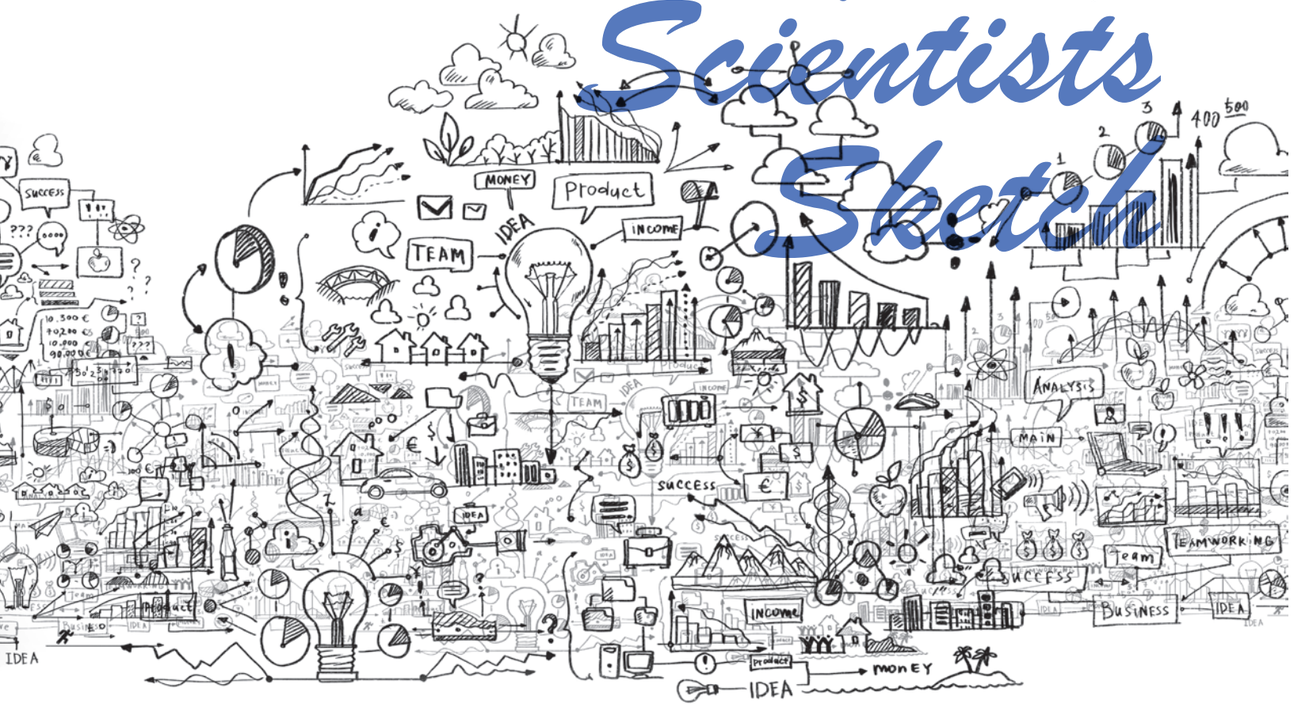
Young Scientists Sketch



차세대 과학자들이 그리는 미래 과학기술

Young Scientists Talk 2017, 11월 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
차세대회원 전원이 융합창의미래 등에 대한 각각의 스케치 공유

> 젊은 과학자들이 마주한 변화와 도전 주제
> 다양한 교류와 토론으로 역동성 불러일으킬 것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Y-KAST)은 오는 11월 1일(수),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영사이언티스트 토크(Young Scientists Talk 2017, 이하 YST)'를 개최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혁명(Next Revolution for Better Living)'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말 출범한 Y-KAST의 첫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차세대회원 73명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Y-KAST 총회이자,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젊은 과학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제안하는 연구정책 국제포럼이 될 예정이다.

> 美 스타트업 HLI의 브래드 퍼킨스 박사 등 기조강연
>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혁명' 주제 패널토론

행사는 그룹토론, 기조강연, 패널토론, 스케치 세션 등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오전의 그룹토론에서는 차세대 회원들이 융합(Convergence), 창의(Creativity), 미래(Future) 등 다양한 주제로 각자가 그리는 미래비전에 대한 스케치(sketch)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휴먼 롱제비티(Human Longevity INC, HLI)'에서 CMO(Chief Medical Officer)를 맡고 있는 브래드 퍼킨스(Brad Perkins) 박사가 기조강연자로서 참여한다. 의사이자 과학자인 퍼킨스 박사는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서 박테리아 관련 연구 성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01년 탄저균 테러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고, 2005년부터 전략혁신책임자로서 백악관과 호흡을 맞추며 국민건강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기조강연을 통해 연구자에서 스타트업의 경영인으로 변신한 이야기와 HLI가 그리는 비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HLI는 세계 최초로 인간게놈을 완전히 해독한 미국의 생명과학자 크레이그 벤터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창업 5년 만에 기업가치 1조 원을 넘기며,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회사다. 전 세계 20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와 건강기록을 토대로 맞춤형 질병분석 및 치료제를 개발, 헬스케어 분야의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만드는 게 목표다.

박용호 YST 2017 조직위원장(차세대부장, 한림원 정회원)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과학기술계의 젊은 리더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젊은 과학자들이 마주한 변화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신진연구자들에게 다양한 교류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역동성을 불어넣어줌은 물론이고, 젊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미래 비전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KAST는 만 45세 이하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젊은 과학자들을 회원으로 선발하여, 외국 영아카데미(Academy of Science) 및 우수 과학자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조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독일,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일본 등 30개국 이상에서 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서로 간 교류 활동을 추진 중이다.

Y-KAST는 이번 행사에 각국 영아카데미 대표단을 초청해 기조강연자 및 Y-KAST 회원들과 함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혁명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